

## 우리를 옹아맨 실체는 국가보안법

최신희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농성단

“아니 아직도 수배해제가 안되었던 말이야?”

요즘, 나를 아는 이들에게 안부전화를 걸면 다들 깜짝 놀라 내게 묻는다. 노태우 정권도, 김영삼 정권도 단행했던 구정권 시절의 정치수배해제를 민주 투사로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이 설마 모른 척 넘어갔으랴 하는 놀라움이다. 그러나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의 현실은 1년을 훌쩍 넘어 무려 500일을 눈 앞에 보고 있다.

처음 정치수배해제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 ‘인권’의 문제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 위에 군림 했던 역대 정권들에서조차도 집권 초기 민심을 얻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농성투쟁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우리는 정치수배 해제가 역대정권 시절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화려한 민주 투사의 이력(履歷)을 방패삼아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역대정권들처럼 민심을 눈치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정치수배 해제를 외면하고 있다.

약 한 달쯤 전, 새로 꾸려질 신당에 참여키로 한 어느 인사가 조계사 농성천막을 찾아왔다. 이야기의 요지인즉슨 김대중 대통령이 힘이 모자라서 민주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여러분같은 운동권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더러 한총련 탈퇴서도 쓰고, 준법서약서도 쓰란다. 그리고 나와서 하고 싶은대로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개혁을 하고자 애쓰지만 힘에 부쳐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신문지상,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은 역대 정권들의 미국배측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간 큰 역사적 범죄행위들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한보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에 맞서 저항했고, 쌀수입 개방으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행위에 항거했고,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해보고자 순수한 학생의 가슴으로 통일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어 우리를 옥죄어 왔다. 꼬투리야 어찌되었든 김영삼이 편안히 역적질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눈엣가시가 된 것이 수배의 본질적인 이유다.

그런데 오늘 현재 김대중 정권의 모습이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고급옷 로비, 조폐공사 과업유도,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 김치협상, IMF를 핑계로 해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알짜배기 기업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밀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인지. 결국 그 이야기는 김영삼 정권의 진철을 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지지하라는 것이고, 잘못을 눈감으라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고상한 충고였던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선다. 여러분의 수배해제는 준법서약서에 타협하지 않는 한,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요원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를 창살없는 감옥일 뿐인 조계사에 500일 가까이 가두어 두었던 것은 결국 정권의 안보에나 이용되고 있는, 정권의 죄악상을 은폐시키는 데나 쓰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었다.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 순수한 학생운동이 갑자기 좌경용공으로 둔갑하고, 이적활동으로 둔갑하여 우리의 청춘을 짓밟아버렸다.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 단지 수배중인 친구를 하루밤 재워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죄 처벌의 협박을 받고, 수배자의 애인이라 이유만으로 집안에 도청기가 설치되어도 항변할 수 없고, 수배자의 가족이라 이유만으로 사돈의 팔촌 집까지 감시당하고 직장에서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해야 했다. 그리고 수배 당사자는 청춘의 가장 값진 시간에서 자유를 빼앗긴채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 인터뷰 - 종이 한 장의 의미

이덕우 · 변호사(정치수배해제 대책위)

-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이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48년 처음 이 법이 생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더 거슬러가면 국가보안법의 모태는 일제 때 치안유지법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이 법은 식민지인 조선의 독립운동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 존재였던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런 법이 해방 후 사회적 합의와 상관없이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의도 속에 국가보안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니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그럴 때마다 터졌고 이를 보수적인 언론이 앞서서 선동해오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때 가장 심했다.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처럼 내부 조직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방법은 없다. 중세 말 카톨릭이 이전만큼의 권력을 보장받지 못하자 만들어 낸 것이 '마녀사냥'이다. 당시 신부와 성직자들은 마을에 '악마가 숨어들었다'며 마녀를 지목하고 검사와 재판, 처형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고문이 발달하고 비합리적인 교회법이 적용됐다. 대부분이 지독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녀'임을 자백했고 이들은 화장 혹은 수장당했다.

간혹 고문을 이겨내 허위자백을 안한 이도 '지독한 마녀'라 해 처형하고 '신앙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결국 마을 구성원들은 공포에 떨게 되고 더욱 철저히 카톨릭 윤리에 순종하고 결속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 재판 과정과 같다. 중세의 '마녀'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고 한국에서 '간첩'이다. 당시 성직자와 검사관들의 '신앙심'이 일제시대 경찰의 '황국신민의 충성'이었고 한국 대공수사반의 '투철한 국가안보관'이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1년에 1만명이 넘게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적어도 한해 3~40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현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세기 동안 최소 피해자가 2000명이요 여기에 가족들까지 하면 1만명이 직접적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연좌제가 적용됐으니 가능한 주변인까지 하면 수만명에 이른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7~80%가 폐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체제유지에 위협적이다. 강력한 군주로 이름이 난 마키아벨리도 '체제 유지를 위해 아무리 성을 많이 쌓아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즉 국민과 구성원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군사력과 국가권력으로 안보는 지켜질 수 없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말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간을 끌수록 국가안보를 위태하게 한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슷한 법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문화되어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대만에서도 이같은 상황인 것은 참고할 만하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남북대치상황에 못지 않게 중국과 준전시상태에 있는데다가 장개석을 비롯해 대부분이 중국 혁명 이후 본토의 기득권을 잃고 쫓겨 내려온 층이어서 공산주의에 원한이 많을텐데도 내부 자생적인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에게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도 한 때 매카시 선풍이 불어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있긴 했으나 미국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지금 준법서약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의 사상전향제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사상전향제도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제도다. 무슨 말이나 하면 고문을 통해 허위로라도 자백해 형을 사는 양심수들은 정신적으로는 반은 죽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사상전향제도는 이런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의 남아 있는 정신적 생명을 끊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전향서를 쓰는 순간 스스로 굴종되고 자격지심의 삶으로 떨어지다가 사회로 나온 후에도 다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 쪽지 하나인데'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 수감자들에게 적용된 이같은 사상전향제도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용된 방법이었다. 오직 신념 하나로 싸워온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틀린 것이요, 천황에게 충성하며 살겠다'는 전향서를 쓴 후에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은 사라지는 것이다.

전향 강요 과정에서 고문이 동원됐는데 이를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 성관관대 총장을 지낸 심산 김창숙 같은 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후유증으로 앓은뱅이가 됐으며 이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 제도가 그대로 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공안사범에게 적용됐다. 특히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 등 장기수들이 주된 대상이었고 고문으로 죽은 이도 많고 강패 수감자들을 동원해 집단구타하기도 했다. 서준식씨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피해자인데 전향을 안해 더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사상전향제도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후에도 정권에게 눈의 가시이고 가장 위험한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이었다.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정치적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며 이를 표현할 자유이다. 또 이것의 기초는 침묵의 자유이다.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도 속으로 왕을 욕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밝히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준법서약서는 어떤 법이 자신이 속으로 마음에 안드므로 지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된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다. 준법서약서는 이론적으로 분석해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향서, 반성문, 준법서약서는 틀만 다르지 당사자에게는 전혀 다를바 없다.

어떤 이는 '나라법을 지키겠다는 종이 한 장인데 뭐가 문제냐' 하고, '정권도 바뀌었는데...'라고 말하지만 형태만 바뀌었을 내용은 사상전향제도와 같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준법서약서 발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쓴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계사 농성단처럼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은 수배자들에게 수배해제의 근거로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구든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인데 이들이 준법서약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

- 지금까지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치인들을 만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1년 넘게 청와대 관계자와 법조인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법대로', '과거와의 형평성'을 말하고 있다. 어떤 법이든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은 지키지 않은 권리, 저항권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닌데 꾸며낸 말이 법조계에 판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악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대로'라고 말하고 과거 잘못된 것까지 '형평성'을 앞서 계속하겠다니... 법조인이라 기능인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해 검사, 판사가 된 것이지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음을 항상 각인해야 한다.

검찰도 옛 선배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진작에 나섰으면 지금 오토비나 서경원 사건 등이 닥쳐도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결론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스스로 헤어 나지 못할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국민회의 의원들을 만나면 '잘 알겠다, 노력하겠다'고 말하는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다.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의장직을 맡았던 한민통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반성문까지 쓰고서야 살아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반성문을 쓴 경험이 있는 현 정권이 그 전과 다르게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이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몇 번 말한 적은 있으나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만약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안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수배해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김대통령의 책임이며, 의지 없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농성단이 수배자인 이유로 전현욱(전교조신문 기자) 후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 500여일의 농성투쟁 평가



## 농성투쟁 평가

오창규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장

### 1. 들어가며

500일에 이르는 학생운동관련 최장기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오늘, 지난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작년 8월 9일부터 시작한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투쟁은 부분적인 성과와 함께 아쉬움을 남긴채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은 우리 몇 사람만의 세속적인 자유를 찾고자 하는데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농성을 시작할 때의 결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5대 목표를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 양심수 석방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과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투쟁의 결과, 준법서약서 극복과 6인을 제외한 전원 불구속 수사라는 부분적인 실익 이외에도 정치적, 조직적 성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조계사 정치수배해제 농성 투쟁은 우리의 소중한 청춘의 일부를 바쳐서 투쟁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삶의 발자욱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념 굽히지 않고 걸어온 한걸음 한걸음을 승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2. 우리는 왜 농성을 결의 하였나

97년 12월,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뤄낸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변화를 갈망하던 모든 국민들의 승리였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핍박 받아온 구속양심수나 수배양심수들에게 정권교체는 자유를 의미하는 희망의

샘물이었다. 그런데 집권 초 3·13특사가 생색내기 사면으로 그치면서 우리는 이 정권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것이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온거나 다름없는 많은 양심수나 정치수배자를 외면했으니 이 정권에 대해 실망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집권 초라면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인데 이런 때 폭넓은 사면을 양한다면 이 정부의 인권과 개혁을 의심해보는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주체의 의지로 수배해제라는 우리의 자유를 쟁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광주 전남대학교에서부터 정치수배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 공표했던 명칭은 '김영삼 정권하 전남대 정치수배 해제 모임'이었다. '김영삼 정권시절...'로 시작하는 명칭은 지난 8월 국민의 정부들어 4번째 사면 때까지 사용하였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농성투쟁과 4번째 사면 때마저도 '준법서약서' 나 '한총련 탈퇴서' 라는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이 정부를 보면서 더 이상 기대라는 것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것은 전·현정권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어쨌든 정치수배해제 투쟁은 그렇게 98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전남대에서 깃발을 세웠다.

처음에는 단기필마로 시작한 수배해제 투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배들과 특히 옛동지들이 마음을 써주고 다리품을 팔아서 점차 자기 활동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한국대학신문'이나 '말'지 등에 기사화되어 하나의 인권 현안으로써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에서 외로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정치수배자들과 연락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정권때의 수배자 문제를 한 지역에서만 투쟁하다가 끝내지 말고 중앙무대로 끌어올려 전국적인 사안으로 쟁점화시켜 내자는 데로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9일 한여름의 띄약별을 머리에 이고 조계사로 입성했던 것이다.

### 조계사 농성 첫날 성명서에 5대 목표를 제출하였다

하나. 준법서약서 같은 조건을 없애고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하나.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하나. 청년 양심수의 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  
 하나. 한총련, 범민련 등의 자주적 대중단체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하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3. 우리는 어떻게 농성해왔나

####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첫째, 정치집회나 문화제처럼 대규모 군중투쟁을 조직하였다.  
 둘째, 단식이나 삭발과 같은 완강한 결사 투쟁을 조직하였다.  
 셋째, 50여개가 넘는 인권·사회단체 그리고 각 대학 학생회와의 정기적 인 연대사업을 전개하였다.  
 넷째, '정치수배자가족협의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 부모님들이 실천활동에 참여 하셨다.  
 다섯째, 대중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조직하였다.

#### 상층 정치협상전을 보조 수단으로

대중투쟁을 통해 사회여론을 환기하고 이렇게 모여진 대중적 기세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협상 또한 필요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전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 구체적인 성과를 남기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체적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농성투쟁이라면 당연히 취해야할 기본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상층정치협상전을 전개할 주체로 수배해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김상근 목사, 김승훈 신부, 문대골 목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이창복 민주개혁 국민연합 의장, 이덕우 변호사, 장재옥 수가협 어머니, 정연오 3기 한총련 의장 아버지, 진관 스님, 오영식 전대협동우회 회장, 김재용 한총련 1기 의장 등이다.

주요한 활동대상이라면 정치권으로는 주로 국회의 인권위원회와 당 중진들이었고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부수석, 법무비서관 등이었다. 활동의 형식과 내용이라면 주로 면담이나 항의방문을 통해 수배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짓고자 하였다.

#### 언론은 우리의 손·발 이었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하였다. 30-40개가 넘는 대학의 학보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취재하여 대학에 홍보하였다.

그리고 주요한 대중매체로는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의 일간지와 말, 한겨레 21, 길, 뉴스메이커, 뉴스플러스, 레이디경향 등의 월간 및 주간지, 여성시대, MBC 아침은 달린다, CBS 등의 라디오 방송, MBC, KBS 뉴스, 화재집중 생방송6시, 리얼코리아, EBS 대학가중계 등의 TV방송에 두루 소개됐다. 기타 독립 프로덕션에서 수차례 우리를 취재하여 작품으로 선보였고 그중 푸른영상에서 제작한 '보이지 않는 창살'이란 다큐멘터리는 조계사에서 '시사회'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언론활동의 주요한 소재는 주로 우리들의 농성투쟁이나 하루 일과였는데, 그중에서도 부처님 전에서 절을하는 108배가 단연 으뜸이었다.

#### 하루 하루의 시간은 빨리도 지나가고

아침 6시면 기상하여 곧바로 점호를 취한다. 점호가 끝나면 대응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108배로 마음의 때를 씻고 신심을 다진다. 그리고 아침운동을 한다. 운동종목은 합기도나 국선도를 해왔다. 운동까지 끝나고 나면 아침식사를 하고 조회를 한다.

하루의 주요한 활동이라면 회의, 문서작성, 전화작업, 손님접대, 독서 등이고 매주마다 잡혀있는 정기적인 일정으로는 한주 계획과 평가, 정세토론 그리고 토요일천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서명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 4. 시기구분은 농성투쟁의 리듬을 밝혀 준다

##### 1차시기 (98년 8월9일 - 8월15일)

이 기간에 실시한 광복절 사면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특별사면이었다. 98년 4월 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수배해제 투쟁이 일정하게 성과를 남기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기대하였다.

##### 2차시기 (98년 8월15일 - 10월15일)

혹시나 했던 사면에서 수배해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우리는 다시금 투쟁을 결의 하였다. 10월 초에 있는 추석을 겨냥하여 이번 추석에는 집에 갈 수 있을거라며 신발끈을 졸라 매었다.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8월22일 결의대회나 9월13일 문화제는 수백명의 군중들로 대웅전 앞마당이 가득찼다. 조계사라는 사찰에서 그것도 수배자들이 펼치는 대중투쟁은 상당히 참신했던 모양이다. 거의 매일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분주했던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중투쟁에 부응하여 유시춘씨나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등 정치권의 인사들이 방문하며 정치협상이 자연스레 시작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3차시기 (98년 10월16일 - 12월3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은 수배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기적 계기였지만, 역시나 무위로 끝나고 우리는 삭발과 더불어 연말까지 지속하는 농성투쟁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연말까지 농성을 연장하였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권시절의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권 첫해를 넘기지 않을거라 확신하였다.

특히 9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임을 자부하는 마당인지라 연말 사면은 분명 기대해 볼만 하였다. 그러나 연말 사면은 취임 1주기 사면으로 그 일정이 대체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는 삭발투쟁이나 장장 9시간에 이르는 3000배를 하는 등 투쟁의 결의를 점차 높혀 나갔다. 12월 들어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공동 단식투쟁에 동참하여 일주일 단식을 전개하였다.

##### 4차시기 (99년 1월1일 - 3월31일)

99년 2·25취임 1주기 사면을 향하여 새로이 각오를 다졌던 시기다. 김재돈, 이영수 단원이 상도동 진격투쟁을 나갔고 한유진, 김대성 두 단원이 새로이 결합했던 시기다.

취임 1주기가 다가오면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정치권으로부터 술술 흘러 나왔다. 1월 23일에는 김대통령 부처가 민가협과 수가협 어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언론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시절의 공안관련 학생 수배자들을 수배해제 한다는 기사가 신문지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로부터 취임 1주기 특사가 발표되었고 수배해제에 대한 추상적인 정부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그 애매모호한 수배해제 방침에 수가협 부모님들이 박상천 의원실로 항의 집회 농성을 들어가고 과천 법무부 청사로 매일 항의 투쟁을 다녔다.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리 대책위와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그 면담 자리에서 수배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수배해제를 권고하겠다는 박장관의 발언이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부터 근거없는 이야기로 확인되면서 수배해제는 다시금 미궁으로 빠져 들어갔다.

##### 5차시기 (99년 4월1일 - 8월15일)

당면 정세적 요구에 부응하자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라는 두가지 중심기조를 가지고 임했던 시기였다.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거라는 국가보안법 개·폐는 밀리고 밀려 하반기 정기국회 시기로 연기되고 말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에 소속하여 활동했지만 국보철폐 정세의 지연으로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토론하여 제작한 국가보안법 철폐 신문을 배포하였던 기억이 있다.



6월 19일 청와대 재야인사와의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배해제를 언급하는 등 생각외로 일찍 수배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있었다. 그 뒤 김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자유메달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배해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8·15사면에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가 병행처리 될 것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김현철 사면이라는 어이없는 결과와 더불어 수배자들에게는 준법서약서나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

### 6차시기 (99년 8월15일 - 99년12월~)

더이상 수배해제에 연연해한다는 것이 구차해졌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중심기조로 12월 일정한 정치적 계기점이 형성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하였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문화제는 조계종의 사태로 무산되었지만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운동은 15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성과리에 결말되었다.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다는 밀레니엄 사면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투쟁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모색을 해왔다. 우리의 지난한 논의의 결론이 기간 싸워온 우리 농성투쟁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고 단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한다면 행동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98년 9월 18일로 기억한다.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과거 정권하의 시국사건 관련 학생 수배자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자진출두 하여 수사를 받고 반성을 전제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국법 질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 죄목에 따라 선별처리 한다."

99년 취임 1주기 사면 발표때 법무부의 기록은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가 자수하여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 는 것이었다.

이것이 99년 8·15사면 시기에 이르면 "수배자가 자진출두하여 한총련 탈퇴서나 앞으로 범법자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불구속 수사나 수배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밀레니엄 시대를 며칠 앞둔 지금, 정부는 수배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왔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당면 인권현안들을 꾸러미로 타결하는 흐름이다.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풀리는 방향이니 이번에 수배문제도 해결하고 가자."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다.

첫째, 준법서약서는 민감한 사안이니 서로 언급도 표명도 하지 말자. 둘째, 6명 선별구속자를 제외한 전원을 불구속 처리한다. 6인중 3인은 구속기간 10일 정도로, 나머지 3인은 구속기간 40일을 넘기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5. 성과 / 과제

### 정치적 성과

우리가 농성을 시작하면서 성명서로 발표했던 5가지 목표는 우리 활동의 화두였다. 비록 그 목표들이 모두 시원스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지난한 투쟁은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성 투쟁은 정치수배자 문제를 인권현안의 하나로 부각시켰으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준법서약서 거부투쟁은 반인권으로부터 양심과 지조를 지키려는 투쟁이었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구속·수배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복무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끈질기게 싸워온 우리의 작은 역사는 500여일이라는 학생운동 사상 초유의 장기농성을 축성하였다.

### 조직적 성과

'수배자가족협의회'라는 부모님 단체의 결성은 자랑스러운 조직적 성과이다. 뿐만아니라 전국연합, 민가협, 유가협 등 50여개가 넘는 인권·사회단체와의 꾸준한 연대사업은 중심되는 조직적 성과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총련 산하의 주요한 대학과의 연대투쟁도 소중한 성과로 남는다. 그리고 핵심적인 조직적 성과라면 이제껏 신심으로 농성을 완수해온 14명의 농성단 동지들이다.

## 실리적 성과

핵심 걸림돌인 준법서약서는 서로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으로 준법서약서는 일정하게 극복했다. 선별구속 문제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47명중 6명을 제외한 전원을 불구속 수사로 하기로 하였다. 민족민주열사 관련 특별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양심수 사면, 양군모 해결 그리고 수배해제 등 당면 인권현안을 해결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날이 갈수록 위기에 몰리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인권문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국면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가 기간의 투쟁을 기반삼아 실리적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각오한 6명의 구속자들이 보석신청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조기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와 자존을 지키고자 했던 지난한 수배해제 농성 투쟁을 잘 마무리짓는 일일 것이다. 우리를 물심양면에서 지원했던 솔한 사람들과 함께 농성투쟁을 잘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양심과 신념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 6. 마치며

전국연합, 민가협, 수가협, 유가협, 장기수선생님들, 한총련 소속 대학 학생회, 개인 후원회와 지인 등 모두에게 감사를 올린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을 내주고 다리품을 팔아준 고마운 은인들. 우리는 이분들께 평생토록 의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어렵지만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깨끗히 지켜가는 모습이 가치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원해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근본을 지키고 신념있게 살아가며 그 삶의 중간 중간에 만나는 은인들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삶을 나눠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뜨겁게 다짐해 본다.

농성단과 함께한 사람들...



어  
머  
니  
의  
시  
선

## 조계사의 자식들에게

장재옥 · 수배자 이창희의 모

소식도 없고,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거리의 수배 2, 3년을 마감하고 조계사 부처님 전에 들어와 천막생활 한지도 1년이 넘었구나. 돌아보면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걱정도 많이 되었다. 그간 애써주신 불교계 스님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부님, 목사님, 종교계 각 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가협 회원 어머님들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들의 시위와 외침은 한마디 틀린 것이 없었고 그 결과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6년 연대사건, 97년 한양대 사건은 사사건건 정부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보자는 함정이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싸우다 학생들은 희생양이 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어머니들의 투쟁.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고 국민 전체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공부만 할 것이지 왜 거리에 나와 데모나 하는지 일부의 국민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잘 한다고 찬사를 보냈었지. 그 당시는 시민단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힘을 쓰지 못한 때였다.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있는데 할 일 없이 학생들이 시위를 왜 하나 하는 소리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인 우리사회와 분단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지금까지 지지해준 원군이었는데 희생자인 학생들이 왜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며 이적이 되는가?

정치인과 법조인, 행정인들은 국가안보에 얼마나 힘쓰고 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구나. 국회에서는 “곧 수배해제 된다.”나오라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법을 만드세요.”하고 검찰에서는 “법이 있는 한 그러나 대통령께서 수사만 간단히 하라 면 하겠다”고 하고 청와대 안은 “나와라.” 해놓고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지. 모든 양심수도 반대하는 준법서약서는 왜 요구하는지,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자술서를 요구했지만 현 정부 하에서는 6백명이 넘는 양심수를 배출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

얼마전에 집회장소도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집회 내용도 미리 보고하는 법이 정해졌는데 이는 학생들을 시위꾼으로 인식해 믿지 못하는 정책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학생들과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과 어른들의 반성은 없고 정의로운 청년학생들만 탄압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머리만 내밀고 발은 후진국에 머무는 형국이 아닌가. 기성세대들의 많은 반성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편히 일할 수 있는 정부정책, 비리없는 정치인,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보장한다면 진보적이고 평화가 보장되는 21세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은 의견이 있다면 각 시민단체나 정부당국에 먼저 제의하고 보고하거나 통신 등을 통해 자꾸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낸다면 세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새 천년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른들이 잘 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양심수 문제를 반듯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새해를 또다시 수배로 맞이할 수배자 전원과, 김영삼정권 수배자 전원 힘내거라.

한 많은 수배자 엄마가.

## 아들아, 장한 딸들아!

오종필 · 수배자 오창규의父

으레 그랬던 것처럼 지난 밤에도 내 발길은 조계사를 찾았다. 쉽지 않은 객지 생활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는 곳이 숙소아닌 조계사라니..... 아마 아버의 情일 터이다.

정치수배자의 멍에를 목에 걸고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그 철혹의 터널 바닥을 기어가는 우리 아들딸들이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기 때문일 터이다. 가봤자 해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별의별 짓을 다해 봤자 권력쪽의 반응이 막무가내여서 이젠 원한만이 싸여가는 가슴을 달래며 이렇게 보기라도 하려고 만져라도 보려고 찾아가는 거다.

준법서약서라... 한총련 탈퇴서라... 게다가 선별처리라... 헌정파괴범, 양민학살범, 국고절도 파렴치범, 반통일 반인륜 범들은 잘도 풀어주더니... 기막히게 답답하고 노엽던 지난 세월이었다.

사람 한 평생이 너희의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 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건 명예로운 자유이지 정의를 꺾고 은전을 받자는 것이 아님을 이 아버지는 잘 안다. 아니 부모님 모두가 다 잘 아시리라 믿는다. 애타지 않는 이, 누가 있겠는가만 너희들의 의기가 장하기에, 그래야만 양심과 정의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겠기에 말없이 이렇게 너희들을 따르는 것이다.

자랑스런 아들, 딸들아 결코 잊지 말거라.

기왕에 지조를 지켜 시련의 길로 들어섰다면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건강 보살피기에 한눈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희들 몸이 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효 제1조란다. 이 세상이 필요로하고 또 너희이 앞으로 살아가

는데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존음을 아껴 정진하거라. 그래야만 너희 고집과 실천이 값지게 된다. 너희들의 수배생활은 인간생활로서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대응하는 인격수양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거 뭐랄까... '사이버 인격교양'이란걸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니.

폐 일언하고 아버가 잔소리 처럼 그렇게 주문해왔던 단전수련을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정성을 다해 수련하거라. 해보면 알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를 말이다. 너희들의 잃어버린 청춘을 그 아까운 세월을 오히려 곱절로 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전 수련이란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다.

장한 아들, 딸들아. 사랑한다 너희들을, 너희들의 조국을, 너희들의 미래를. 부디 힘내기 바란다.

## 순수와 열정, 헌신과 투혼의 청년들

권오현 · 민기협 공동의장

“진리의 상아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서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한다.”

4월혁명, 바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어느 교정에서의 출정선언 머리글이다.

노동자가 공장을 지키고 농민이 땅을 일구듯이 학생들도 학문연구와 진리 탐구에 열중하는 것이 정의사회에서는 정상이겠지만 비틀린 역사, 잘못된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젊은 지성들이 상아탑을 뛰어나오면서 토해낸 양심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이미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외세의 등에 업혀 제 거래를 억압·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를, 그 더러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기 위하여 자행된 3.15부정선거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어린 김주열의 참혹한 주검을, 더 이상 상아탑만을 지킨다는 것이 또 다른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주저 없이 생명을 내걸고 교정을 나섰다.

일상에 머물면서 맹목에 동원되는 위선의 박제가 될 수 없기에,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민중들이 노예적 삶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일시적 감정에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의 명령으로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햇불 높이 들고 자유의 종을 난타하며 독재의 아성을 압박하였다. 마침내, 낡은 우상은 허물어 졌고, 그들이 예견한 대로 참담한 박토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맨주먹으로 총칼에 맞선 위대한 항쟁이었고, 빛나는 승리였다.

이 땅에 아름답고 빛나는 청년상이 있다면 바로 이들 4월의 사자들이었다. 그렇다. 그날 동숭동에서 신촌까지, 흑석동에서 명륜동까지 아니 장안의 대학마다 까까머리 중·고등학생까지 교문을 박차고 나와 종로, 을지로, 태평로, 세종로, 경무대 길을 메울 수 있었던 것은 젊은이들만이 갖고 있는 정의실현에 대한 힘과 용기였고, 순수와 열정, 지성과 양심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은 수 천년동안 숭한 외세침략에 굴하지 않고 민족자존과 민족문화, 민족정기를 지켜왔던 주체의 식이었고, 반외세 반봉건의 갑오농민들의 투혼과 일제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워 이긴 3.1항쟁과 무장투쟁정신이 면면이 이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오농민군도, 4월의 사자들도, 6.3 한일회담 반대대열도, 4.3유신독재반대 민청학련도, 광주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도 그 주역이었던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그 당시엔 반역이고, 변란이며 폭력 집단이었다. 그래서 잔혹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 정치수배를 당해 왔었다. 그러나 역사와 민중은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낡은 것을 허물고 바른 역사를 일구는 주역으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과 자주화 등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희망의 표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었다. 특정계급·계층이 아닌 만민을 위해 모순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순수와 열정을 지닌 헌신과 투혼의 지성들이었다.

제 나라와 제 거래를 끔직히도 사랑했던 일로 제 땅에서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세우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한 일로 터무니없게 이적으로 몰려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양심적인 애국청년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빗더미 속에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 가격보장과 무절제한 농산물 수입을 반대했었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며 양민을 학살했던 주역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요청했고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할 것을 주장했었다. 대선자금 공개도 요구하고 반민주악법철폐를 주장했다. 건전한 민족문화보전과 학원자주화 운동도 펴왔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 세대전 4월의 사자들이 상아탑을 박차고 나오며 외쳤던 이유와 같았다. 외세와 분단의 민족적 모순과 불평등 사회구조 속에 민중들의 고통은 오히려 누적되고 심화되고 있었다. 30년 군사독재체제에서 이른바 문민정권이 들어섰지만 3당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 관성은 이어지고 있었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웠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자가당착에 빠졌을 뿐 실제로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아예 없었다. 특히 문민정권 5년동안 4268명의 양심수를 잡아가둔데서 볼 수 있듯이 인권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정상회담까지 약속된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이끌었고 물난리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려는 일마저 탄압하고 있었다. 청년학생들은 학생 이전에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이었고,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사회적 혜택 때문에서도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 또한 노동자나 농민, 도시빈민, 의료인, 법조인, 교사, 여성단체, 산악인, 체육인, 경제단체처럼 스스로의 자치기구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도 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지성을 갖춘 청년이었다.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대학생이 자주적 학생조직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고, 보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이들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워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수천 명이 잡혀가고, 수백 명이 쫓기고 있었다.

높고 깊은 수려한 계곡은 아니어도 그윽한 향내와 장중한 독성소리 끊이질 않는 도심의 큰 절, 바로 조계사 뒤뜰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천막이 하나 세워져 있다. 청춘도 이상도 접어두고 학우들과 가족들과 헤어진 채 왜곡과 편견 때문에 부당하게 쫓기고 있던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 가운데 그 일부가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이다. 1998년 8월 9일 부처님의 자비로우심과 스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 불별더위 속에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가 이미 490일을 넘기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도 아침 6시에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천막과 주변뿐만 아니라 절 마당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다. 이어 법당 옆에서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마음의 사악함을 씻어내고 있다. 그리고 8시까지의 마음을 갈고 닦았던 것처럼 몸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한다. 이어 스스로 지어 마련한 밥상 앞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표하고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철폐’ 등 식훈의례도 빼놓지 않는다. 9시에는 아침회의시간, 하루 할 일을 협의하고 수배해제문제 등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토론했다.

낮 동안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동료학우들, 종교인, 인권, 사회단체대표들, TV·신문 등 언론기관들, 정치수배해제대책위원회 대표들, 정당의 인권관계자들, 그밖에 이들의 고통을 나누려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들

고 자신들의 의지를 전한다. 천막에서 열리는 정치수배해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법무부, 검찰청으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대법당이나 그 앞마당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대법회, 시민한마당,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독서와 운동, 사색도 하고 편지를 쓰며 자유시간을 갖기도 한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자주와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 일을 끝내고 12시에 잠자리에 든다. 회·노·애·락을 동지적 애정으로 함께 하며 천막농성을 이어나고 있다.

아홉 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가입혐의로 한 사람이 집시법위반혐의로 정치수배를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같은 세대 학우들처럼 저마다 크고 작은 뜻을 품고 내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개성에 맞는 일과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을 하며 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정론을 펴오기도 했고,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쌀방아간을 하시는 아버님의 가업을 이으려는 소박한 마음도 있었다.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 만화를 통해 이상사회를 꿈꾸는 소녀였지만 노동현장의 소외계층을 보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대학학부를 이미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 입학, 전근대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기독교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농민·농업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래를 부르고, 조각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예불세계를 꿈꾸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대로 이미 대학생이 본 사회·역사·민족·민중·정의·인권 등을 시로써 형상화하며 쫓기면서 써두었던 시편들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도 있다. 이들의 꿈과 희망, 주장과 요구, 실천활동 등은 바로 4월의 사자들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것들이었다.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고 대들보들이다. 그들의 정신이 옳고 그름에 따라 나라가 튼튼할 수도, 기울어질 수도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깨끗했으며 의롭고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맹목의 전투원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력과 확신으로 열심히 꿈을 키워 가는 성실한 젊은이들이었다.

2년에서 3년, 많게는 7년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소식도 없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찬바람, 불별더위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슴에 큰 못을 박고 지내던 부모님들이 마침내 천막을 찾아 오셨다.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것만도 반갑고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빛을 내어 학교에 보냈더니 겨우 쫓기는 몸이냐고 원망도 하시었다. 이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사를 받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비좁고 땀내음 가득한 천막에서 함께 지내며 자식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 본 부모님들도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정치수배해제’ 어깨띠를 하고 “내 자식들 주장이 무엇이 잘못된가? 세상 사람이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찍 알아서 외쳤던 게 죄란 말인가?”라며 부모님들도 집회에 함께 하며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청와대, 국회, 법무부를 수없이 찾아가 청원도 하고 규탄도 했다. 공안당국자들은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

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어찌 애국학생을 '이적'으로 매도하여 쉽게 팬대를 놀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정이 묻어나는 청순한 청년들이 어찌하여 폭력집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명절 때나 특별한 날을 잡아 부모님들과 민가협, 유가협 어른들, 오랜 옥고 끝에 풀려난 선생님들, 사회단체 어른들을 초청하여 스스로 마련한 소박한 음식을 대접하며 세배를 올리기도 했다. 하루에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면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00,000배 쌓기 운동"도 했었다.

그들은 갈 곳 없이 찬바람 부는 거리를 쫓겨다니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부당한 요구에 머리 숙일 양심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반통일·반민주·반인권 악법인 이상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준법서약철회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많은 일간, 주간, 월간 잡지에서 이들의 의지에 공감하는 기사를 썼고, 방송·영상매체가 보도했었다. 독립영화사 '푸른영상'에서는 이들의 생활과 의지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12월 5일 발표하기로 했다. 명망 있는 각계 인사가 수배해제요구의 성명을 수없이 냈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범불교계 스님 1080명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도 수배해제를 말했었고, 집권당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조계사 담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겨울은 닥쳐왔고 언 땅 천막에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야 될 것인가?

새 천년이 오기 전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과 함께 이 빛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자유의 날개를 펴고 푸른 창공을 날 수 있게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 강인한 의지 앞에는 운명도 길을 비킨다

이두균 · 장기수 선생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1년 넘게 5백일이나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자주·민주·통일 일꾼들에게 격려의 글을 쓴다는 것이 웬지 노 선배의 교만이 아닌가 싶어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년초에 방문한게 어제와 같은 데 벌써 년말이 성큼 성큼 다가옵니다. 설한풍이 비닐 천막을 두들기며 엄습하는 추위를 젊음의 열정으로 녹여가는 모습을 보고 머지않아 수배해제를 관철하겠구나 싶었는데 미해결인 채 추위가 다가오니 노파심에 걱정이 됩니다.

피해서 다니는 소극성보다 한데 뭉쳐 자기들의 역사적 당위성을 내외에 주장하는 적극성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운동발전의 활력소이며 이 겨레 청년의 당당한 기세이자, 패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적세력이 완강하고 간악해지면 간악해질수록 기세를 드높혀 승리를 다지고 영웅, 열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길목에서 저들이 한 발 물러서면 대단결의 양양된 의기로 전진을 다그쳐야 함에도 공을 다투고 분열을 자초하는 궤변자들이 목청을 높이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원칙을 강조하면서 원칙에 복종않는 초강경론자, 변화의 주체로 변화를 향도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발휘하기보다 변화를 빙자하여 시류에 영합하는 출세주의자, 내지는 청산주의자들을 보노라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현상은 본질을 발현하지만, 때로는 본질을 왜곡도 합니다. 교체된 정권과 여야의 위상이 전과 변화한 양 차별성과 개혁성을 표방하지만 예측성을 벗어날 수 없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굴종의 잔명을 연장하려는 이전투구의 쟁탈전일 따름입니다. 겨레의 자주와 민중의 요구와 지향은 안목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민중을 저희들 인심쓰기의 대상으로 삼을 따름입니다. 몇 차례 양심수 석방에서 드러났지요. 개혁의 주체로 양심을 양양하기는커녕 상처를 강요하는 독재정권의 본질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피어린 민가협 어머니들의 석방투쟁과 온 민중의 사랑을 한 몸에 담뿍 받고도 가볍게 종이 한 장으로 반담하는 처사에 쓰디쓴 배신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만, 지식인의 이중성으로 체념합니다. 지식도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환원하는 인간화가 될 때 존귀하지, 상품으로 개인의 사유물이 되면 천박해집니다.

조계사 농성단의 장구한 수배해제 투쟁은 운동역사에 새로운 경험을 창출한 줄 압니다. 노사문제나 비리척결 투쟁과는 달리 법과 양심과의 싸움이라 지루하게 끝니다. 칼자루를 빼여 들면 하루 아침에 천막을 감방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개혁을 표방하는 인권대통령의 도덕성이 실추될까봐, 해제를 하자니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마저 잃을까봐 망설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비난을 의식해 침탈을 자제해왔을지도 모를 사원(사찰)이라는 성역의 보위속에서 장기 농성투쟁이 자칫 스님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치열한 투쟁의 긴장이 이완돼 무모한 의견의 상충으로 동지상호간의 단결을 해치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IMF의 궁핍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승리를 지원하는 부모형제들과 이웃에게 믿음직한 불요불굴의 지도자 상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농성장은 투쟁의 현장임과 동시에 정신적 이론무장의 학교입니다. "강인한 의지 앞엔 운명도 길을 비킨다"하였으니 더욱 투쟁에 매진, 매진합시다.



# 내가 본 수배자, 그들을 고발한다!?

이호중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양군모 농성에 결합하기 위해 가방 끌러메고 조계사를 찾았던 작년 이맘 때가 생각난다. 이슬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점심시간이라 가방 내려놓기가 무섭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배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 인사가 1년이 넘게 동거할 인연이 될줄을...

수배자와 양군모로 만난 사람들.

수배, 구속, 징집이 청년 양심수가 거쳐가는 일반적 과정인 경우가 많으니 양군모는 정치수배자들의 선배격 이라고나 할까? 수배자들은 학번으로 우릴 누르려 하지만(학생운동 최장기 수배자까지 있었으니...) 우리는 수배, 구속 다 겪었으니 양심수로서는 선배가 맞는 셈이다.

경내를 벗어날 수 없는 배자들(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과 전과자에 병역기피자의 명예(?)마저 안고 사는 군모(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20여명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몇 평 안되는 천막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여름의 혹한을 이기며 미운 정, 고운 정이 든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말, 특히 폭로하고 싶은 말(메가톤급으로)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충분히 자제하기로 하고 깃털 몇가지만 얘기 해볼까 한다.(나름대로 대중투쟁을 잘해서 많은 이들이 수배해제 투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흠 잡을 일 몇가지만 얘기하려는 것이다.)

일단 먹는걸 너무 밝힌다. 오랜시간 근육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든다. 요구르트를 먹어도 '네버다이 칸'만 먹고, 빵을 먹어도 생크림빵을 고집하고 사시사철 과일에, 떡에... 손님들이 사다주는 물품에 곡차라도 한 병 눈에 들어오면 면벽 9년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근래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잔심부름을 시키는데 죽어나는 것은 우리다. 다 늦은 밤에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군모는 배자 심부름하느라 설 틈이 없었다.

자기들 끼리만 맛있는 것 먹다가 우리에게 적발된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또 하나 낮잠을 자도 꼭 우리 농성장에 와서 잔다. 참 그 심보를 이해 못할 노릇이다. 우리 농성장은 휴게실이고 배자농성장만 농성장이란 말인가? 하여튼 인격수양이 덜된(?) 사람들이 더러 있어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양심수 선배인 우리가 너른 마음으로 품었기에 지난 세월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 조계사 농성의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다. 결단의 순간에 바라보게 되는 배자 농성단은 양심수로서는 우리들의 후배이지만 민족과 민중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는 우리들의 선배들이다. 다만, 과거 독재정권도 어렵지 않게 결단 내렸던 문제가 500일 가까운 농성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음에 우리 또한 분노를 느낄 뿐이다.

이제 이곳 조계사를 떠나게 되면 어디서 다시 만날수 있을까? 함께 나갈수 만 있다면 종로 한복판에서 술한잔 거나하게 들고 어깨걸고 노래한곡 불러도 보며 이후를 기약하겠지만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어쨌든 20대 후반의 황금같은 시기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절이기에 쉽사리 잊을 수는 없을 것이며 분명히 민족과 민중을 향한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글을 보시게 될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500일간의 수배해제 투쟁은 실질적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결코 실패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그 투쟁은 10여명이 넘는 청년수배자들을 튼튼한 투사들로 만들어 내었다고, 적어도 옆에서 본 우리로서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리고 이들을 지켜봐 달라고, 이들이 수배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당당히 조국을 위해 싸우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테니 그날을 지켜봐 달라고.

## 이들 역시 자기 자리에 선 佛보살님들 입니다

방용덕(법명 法王子) · 조계사 직원

98년 여름 어느 날 대구 집에 다녀오니,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계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다. 대웅전을 지나니 조그마한 천막이 준비되어 있고 젊은 청년들이 여럿 있다.

한충련 조계사 농성단! 젊은 청년 남녀들이야 어느 누구 다를 것이 있을까...? 조금 더 절제되어 있음과 무절제함.. 욕망의 크고 작음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의 넓고 좁은 범위의 차이일 뿐... 이들 역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며 해매는 고해의 중생들이다.

보다 더 바른 길을 찾고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며, 스스로 깨어 두 눈 부릅뜨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행하는 행자(行者), 수행자들의 하나에 속한다.

조계사 일이 워낙 많고 바쁘다보니 우리 처사들의 손만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어서 농성단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농성단의 단체생활에 규율이 있다보니 이들 개개인의 움직임에도 질서가 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일도 해야하고... 쌀 운반 작업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 힘들고 무거운 운반 작업이어서 피곤하고 싫은 내색이 비치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몇 있었고, 지금은 모두가 웃으며 활기차게 열심히 해준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렇지만 농성단 학생들 역시 아직은 같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기에 그들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간혹 미소 지었고....

피끓는 젊은이들이 조계사 내에서만 지내려면 오죽 갑갑할까...? 하지만 조계사 농성단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하루 생활을 아주 잘 지낸다.

학생 운동의 참 모습을 모르는 저는 단순히 피상적인 생각만으로 그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대입해서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60여명의 제자들이 생기자 그들에게 포교,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떠나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다.

“ 자~ 떠나라~...! (덧붙임: 행하라, 생활 속에 실천하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 “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보다 바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가나 그들의 목표,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곳곳마다 불 보살님들이 계시다고 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 하나의 불보살이다. 각자가 보살이니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 선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서로 같은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 믿는다. 우리들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 냉철한 자기 점검이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떤 집착(바람, 욕망, 욕구)이 있어서 원하는 바대로 된다면 웃고 기쁘고 즐거우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슬프고 우울하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리석음..... 이것을 일러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세가지 독한 마음이라 한다. 바로 탐진치 3독심(욕심-집착, 성냄, 어리석음)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두 가지를 더하면 다섯 가지 독한 마음이 된다. 바로 5독심이다. 이것들을 끊을 수 있다면 해탈이라고 했듯이 운동가들의 여정에도 바른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눈, 코, 귀, 입, 몸  
뚱이, 의식) 이것들이 대상에 반응하여 익어진, 습성이 되어 생긴 여러 가지  
감정들, 타성들, 5욕7정. 이러한 감정들의 조합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모  
든 문화 생활이라는 것이나 소설, 영화, 오락, 놀이, 인생.....개혁, 운동.... 이  
상향, 낙원....

농성단 학생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일반 세인들보다  
조금 더 고민했는지 모르나 갖가지 감정들의 조합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해매기는 마찬가지.... 운동과 수행.... 이 둘은 현실 생활에서 그 방법을, 표현  
의 방식을 달리하지만 같은 길이다. 적절한 자기 내면의 타협에 의해 주저않  
을 수도 있고, 즐기찬 걸음을 행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다. 항상 자기 자신 내면의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천하라, 행하라, 떠나라~)세상  
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  
여... 6바라밀의 보살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  
정, 지혜)

내 마음속 온갖 갖가지 욕망, 욕구들을 다 쥐 버리고, 꿈을 위해서 가져야  
할 지조를 지키며, 수많은 풍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없이 인내하며, 불퇴  
전의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정진하고, 세상 풍파 속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판단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총련 조계사 농성단 학생  
들... 이들 역시 자기 자리에 선 불보살님들입니다. 끝없는 수행 정진, 성취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9년 늦은 가을... 조계사 처사 법왕자 (法王子) 합장

## 푸른 의지의 향기를 흠모하며 ;

지 흥·조계사 주지스님

차가움이 닥쳐오면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더위가 찾아오면 시원함을 생각합니다. 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외면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단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밝은 빛을 잃지 않고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고 바로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삶의 모습이 조계사 도량에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저도 또한 출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조계종 사태를 겪은 당사자로서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모진 더위와 모기의 극성을 이기며 천막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굴함없이 농성을 계속하는 여러분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108배와 참선 수행으로 자기 생활에 엄격함을 지키고, 도량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지런함과 정돈된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배운 발심수행장에 보면 “ 좋은 음식 길러봐도 몸은 끝내 무너지고, 비단으로 얼싸쥐도 이내 목숨 마치리니, 올려주는 바위 굴로 엽불법당 도량삼고, 슬피우는 새소리로 즐거운 빗 짝을 삼세. 어는 무를 에어내도 불 생각을 전혀 잊고, 주린 창자 끊어져도 먹을 생각 말 것이니, 번쩍하면 백년인데 안 배우고 어이하며, 한평생이 얼마이기 닦지않고 방 일하나 ”라는 구절이 농성하신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이와도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 나라가 갖는 한계성과 기득권이 너무도 두텁고 강하기에 이에 의해서 침해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이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이 보장

## 늘 변함없는 모습

인은현 · 단국대 95학번

되고 양심의 소리가 바로 전달되고 지켜지는 줄 알고 있지만 수많은 화려함의 포장으로 감추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게 서로 논의하고, 또 학습하면서 밝게 사는 모습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다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인연은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평생을 지탱할 힘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작은 도토리 속에도 커다란 참나무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커다란 참나무 한그루가 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과 바른 순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참나무는 작은 도토리의 꿈이며, 희망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저희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쯤이야 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아주 평범하고 흔한 얘기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말들이 더욱 가슴에 다가오기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기에도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을 하는데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냥 살려서 것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많은 애정과 격려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고치려 애쓰는 사람은 정치가나 권력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고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살았던 선배님들이 그렇게 보여주었고, 앞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뜻을 함께하는 후배들에 의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밝은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추위가 거세게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 선후배들이 언제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더욱 몸 조심하고, 끝까지 굳은 의지의 향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1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처음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그 겨울 외투를 입고 조계사로 발길을 옮깁니다. 98년 뜨거운 여름 땀방울에 시작한 조계사에서 천막 농성이 벌써 2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의 그들의 긴 농성 투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이창희 농성단원의 제안으로 하게된 한 달여 간의 수가협 간사활동으로 조계사 농성단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2.25특별사면을 바라보고 자식들의 수배해제 투쟁을 위해 몸서 나서신 부모님들. 아직은 추운 날씨에 국회로, 법무부로, 매일 수배해제를 외치시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 앞에서는 농성단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실된 모습들이 저에게는 먼저 인간적인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흐트러짐 없는 조직생활과 끊임없이 투쟁을 일구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어린 후배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과 108배! 어찌 보면 조계사 안이라는 국한된 공간 속에서 단조로운 일상일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간의 농성 투쟁이 되면서 조금은 느슨해진 모습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조직생활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3년에서 길게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배생활을 하였지만 아직도 조계사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서는 처지입니다. 그러해서 그들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계사에서 벌인 투쟁만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수배해제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인권문화제.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한 어버이날 행사. 수배해제 기원 10만배 운동, 300일 기념 하루 찾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수요법회 등등. 끊임 없는 이러한 사업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조계사를 다녀갔습니다. 하나 하나의 행사에 정성을 다하고 농성단원들의 제각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8.15에도 지나간 수배해제 농성이 끝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정권에게 바라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오직 투쟁으로 수배해제 농성을 승리적으로 마감하겠다는 농성단의 의지는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밀레니엄이다 뭐다 해서 모두들 새 천년에 대한 기대들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올바른 과거 청산 없이 새 천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 시절의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 정권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 이 땅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새로운 세기에는 양심수란 단어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열한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채은아 · 민가협 리사

얼마전 조계사 농성장에서 데려온 십자매 5마리 중 2마리가 죽었다.

집에 온 지 하루만에 한 마리, 그 다음날 또 한 마리가 변을 당한 것이다. 먼저 죽은 것은 데려 올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보이고 다른 새들에게 '왕따'를 당해 신경이 쓰이던 놈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새를 유난히 괴롭히던 놈이다. 놈들의 사인(死因)은 알 길이 없지만 내 눈앞에서 죽어간 새들에 대한 충격으로 남은 놈들을 다른이에게 주려다 그냥 데리고 있기로 했다. 다행히도 나머지 3마리는 잘 지낸다.

내가 별로 예쁘지도 않은 십자매를 데려와 이런 변을 당한 데는 까닭이 있다. 목요일집회를 끝내고 오랜만에 발길을 조계사로 돌렸다. 언제나 향내를 음미하며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그곳에 난데없이 육중한 철문이 서 있었다. 그 안쪽으로는 '어깨'를 떠올리는 건장한 청년들이 버티고 서있었다. 아마도 조계종 내분으로 인해 생겨난 상황이라. 하지만 내 몸과 머리는 육중한 철문의 교도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가끔 농성장을 찾을 때면 '신선놀음'이라고 놀려대던 이들이 수배자라는 것을, 창살 없는 감옥살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배자라는 것을, 아니 철창 안에 갇힌 수배자라는 것을. 불감증에 둔감해 졌던 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들어선 천막. 이들이 먹고, 자고, 책 읽는 그 천막 안에서 새장에 갇힌 십자매를 발견했다. 어느 신도가 방생한 것인데 얼어죽을까 봐 새장에 넣었다고. 그 순간 나는 절 입구의 철창을 다시 기억해 냈다. 오래 전 감옥에 갇힌 친구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서 버틸 것을 생각하며 갑갑증에 숨을 헉헉대던 기억과 함께.

## 에 수배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처음 조계사를 찾았던 것은 지난해 추석 즈음인 것 같다. 준법서약제 논쟁으로 어지러웠던 8월을 보내고 한숨 돌릴 때쯤,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 당한 학생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동성당도 모자라 이제 조계사까지 동지를 틀고 앉아 우리 어머니들을 얼마나 바쁘게 만들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은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은 봐야할 것 같아 조계사를 찾았다. 대웅전 옆에 그럴 듯 하게 천막을 쳐놓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찾는 손님도 제법 많았다. 속으로 '지들이 잘 알아서 하겠군'하며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조계사 동지(?)들의 연대의 손길은 수시로 뻗어 왔다. 회장님과 어머님들은 청와대, 국회, 정당, 법무부, 검찰청을 내 집 드나들 듯 다녀야 했고 집중기간, 투쟁기간엔 집회다 항의방문이다 숨쉴 틈을 주지 않는다. 때론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포위되기도 하고 우악스런 경찰의 손에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화가 났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냐?" 하지만 그토록 피곤하게 하는 이 친구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그 까닭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머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만도 아니다. 어느새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때로는 그 고지식함을 답답해하기도 했고 질타하기도 했지만 이런 청년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지 않을까 싶다. 영화를 하고 싶은 유진이, 대학원을 마쳐야 할 창규, 점차 내공이 깊어가는 시인 병문이, 고물 컴퓨터를 120% 활용할 줄 아는 춘호, 애인 빵바라지 해야할 현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창희, 매력적인 남자 태진, 홍일점 이쁜이 선희, 언제나 믿음직한 재철이, 대성이..... 모두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40일도 채 남지 않은 2000년을 맞기 전 이들이 조계사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니, 12월19일(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열한번째 공연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겠다.

## 농성단에게 전하는 말...

기나 긴 수배의 길이지만 난관을 뚫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그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어 좋다. 정치수배해제는 그대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기애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안아 와야 한다.

자식과 부모가 아닌,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자. <유기환 어머니 아버지가>

지난 9월 조계사에서 울려 퍼지던 동지들의 노랫소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동지들의 맹세, 그 맹세를 믿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매서울수록 더욱 푸르게 서 있는 동지들, 그대들은 진정 이 땅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정연희>

조계사 마당의 커다란 나무에 넉넉한 보름달이 걸렸다. 바깥에서 순찰을 도는 경찰들도, 안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수배자들도 한적한 조계사의 보름달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양심과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400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는 이들에겐 그 몫이 없는 것인가? 이제는 그들이, 조계사 담장밖의 하늘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도 가벼운 눈인사로 무심히 지날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민기환 리사 신채봉>

2년 가까이 조계사 농성을 하면서 자주 민주통일의 길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한 동지들! 정치수배해제는 김대중 정권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선배 동지들과 우리의 지난한 투쟁의 당연한 결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힘내고 투쟁합시다. <전국연합 조직국장 김기창>

날이 추워지니 농성하는 동지들 생각에 가슴이 저미입니다. 해를 넘기는 농성에 몸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좀 더 힘내서 투쟁합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 해가 보다 정의롭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합시다.

지난해 동지들의 굴함 없는 투쟁은 못 동지들의 귀감이었습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동지들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민주노총 통일국장 김영재>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사심없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애국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인 한총련 애국 학생들이다.



역사가 웅변하듯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독재자들의 모진 탄압을 기꺼이 감내하며 바른 말을 하고 정의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최선봉에는 언제나 애국 학생들이 있었다.

특히 매국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는 36년간의 암흑의 독재 치하에서 고귀한 목숨까지 바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바로 전대협이고 한총련이다.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부르짖으며 400일이 넘게 농성투쟁을 벌이며 크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 한총련 애국 학생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이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흘린 피와 땀을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리라.

**<한총련외무모임의회 운영위원장 심병호>**

먹빛 어둠이 깔린 새벽길에 나서니 밤새 굶은 비에 시달린 낙엽들이 수북히 거리를 덮었습니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뇌수를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초겨울의 아침입니다. 문득 겨울이면 더욱 등 시린 동지들이 생각났습니다. 한치라도 바람이 들세라 꼭꼭 여민 천막의 틈새를 들추는 찬바람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지난 추석 무렵 위원장님과 함께 동지들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어둑한 실내에 가지런히 걸린 옷가지와 손님이라고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내놓던 깎듯함, 그리

고 천막 밖으로 새어나오던 밝은 웃음소리 등이 처음 농성장에 들어설 때의 스산스러움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텐데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동지들의 모습이 들쭉거리면서도, 동지들이 키우는 강아지라며 동지들의 발끝을 쫓던 강아지를 보며 한편으로는 동지들의 외로움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이 투쟁의 끝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심장을 들끓게 하던 1900년대를 마감하는 끝머리에 서서 잠시 망연한 기분이 듭니다. 새 천년에는 구체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성이라는 실타래의 한끝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동지들이겠지요.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견뎌온 동지들, 다시 한번 이영차~ 단심을 모아 동지들의 신념을 씨줄로 삼고 민중의 힘을 날줄로 엮어 역사의 새 장을 만들어 봅시다.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무부장 전연옥>**

농성 1주년을 즈음하여 한총련 동지들에게 바람이 점점 싸늘해지네요. 곧 겨울도 성큼성큼 다가오겠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 진료 나갔을 때 힘든 몸일 텐데 얼굴 가득한 웃음이 좋았어요. 그대들을 보면서 그리 멀지도 않은 그 때 우리가 학생이었을 적, 세상과 타협하면서 변해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 속 간직한 맹서를 다시 듣습니다.

"난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학생들과 같이 하겠다. 학생들 속에 껴이지 않는 진리와 정의의 빛이 있노니..."

우리는 알아요. 그대들이 왜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 어머니의 사랑, 피뎀 정열, 하늘색 꿈을 그대들에게서 봅니다. 그대들의 투쟁이 있으니 국가보안법은 없어집니다.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대들의 수배가 풀릴 때, 우리 모두 자유로와 질 거예요 한총련 동지들이여, 그대들은 민족의 미래입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업의회>**

**창규형계**

형의 모습속에 나의 삶을 대보곤 합니다. '형처럼'이란 말을 해보기도 합니다. 형의 모습처럼, 살처럼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형은 나의 희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사들의 모습처럼, 형의 모습처럼.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 날까지 희망으로 서있을 형의 모습을 또한 바랍니다.

학교를 떠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예전에 느꼈던 감동과 그 감동속에서의 결심들이 하나 둘씩 기억밖으로 지워져 가던 중 조계사 농성단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작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는 예전의 감동을 되찾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성단 분들을 생각하며 하루 하루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힘내세요. 투쟁! - **민수정** -

**유진 선배**

오늘 첫눈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첫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전 1천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첫눈에 이 땅에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라는 굴레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희망의 눈'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 희망이란 말로만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지만 조계사 구석진 곳에서, 여의도에서, 명동성당에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 각 학교에서, 그리고 각자 생활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양심들이 있는 한 그 희망은 새천년이 오기 전에 꼭 오리라 확신해요.

언젠가 TV에 나왔던 농성단들의 아주 소박한 꿈들도 꼭 이루어지겠죠. 2000년대 어느 날, 오빠가 만든 영화를 저의 가족이랑 함께 보러가는 걸 상상해 봅니다. 흐뭇한 웃음이 나네요.

- **김에리** -

정치수배해제 농성이라는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 **정희일** -

창규형님! 덕분에 생활 한복 싸게 샀습니다. 감사합니다요.

- **박선후** -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회의좀 그만해요. 회의론자 되겠다. 회의 이제 그만!

- **추청근** -

창희형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자유롭게 애  
인과 눈오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백수 -

작년 여름, 수배해제 농성천막을 처음 찾은게  
벌써 그해 겨울이 가고 이제 새로운 겨울이 오  
려고 합니다. 긴 농성 기간동안 항상 변함없는  
모습! 멋있었습니다. 올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  
시구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왔었던 선배님들 참  
인상깊었구요. 새천년엔 수배해제 되어 다시 만  
나고 싶습니다.

PS. 창희오빠 건강하시구요, 양군모 음식은  
건드리지마--세요. 그리고 태진오빠 학교선배  
님인데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미안하구요.  
씩씩하게 사세요. 꼭차는 좀 자제하시구요.... 오  
빠 내 맘 알죠? - 김영아 -

사실 제가 자주 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형들  
의 생활을 잘 모르니까 무엇을 바래야 할 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형들은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해요?'하면 속 상  
하실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신념을 지키시며 사시는 형들께 부  
끄럽지 않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  
라는 말씀과 앞으로 더 힘이 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더욱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운 겨울,마음은 뜨거우신 형들이기에 건강  
하게 지내시리라 믿으며 무지무지 추운 왕산에  
서 미회가 드립니다. - 박미희 -

## 너무도 고마운 분들에게

언젠가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계사 농성단  
투쟁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듯이,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은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가 500여일 가까이 농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사람들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수가협 부  
모님들부터 절의 스님과 신도분들, 광범위한 사회단체 어르신들과 간부, 회원들로부터의 광범  
위한 지지와 협조 그 자체가 조계사 농성단의 투쟁력이었습니다.

조계사 법난 당시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 경찰이 농성중인 수배자도 잡는다고 달려들었을  
때,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몸으로 막고, 민가협 어머님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게 말리고, 재  
야 어르신들이 청와대로 전화를 하여 "수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항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권력은 10여분과 우리와 대치하다  
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조계사 농성단에 대한 연대의 힘입니다.

사면에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홍근수 목사님, 진관 스님 등 재야 어르신들이 직접  
부모님들과 함께 법무부에 찾아가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책위원이신 진관 스님은 저희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다가 지금 국가  
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무척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이렇듯 크게 받은 사랑을 생각만 하면 고마움에 눈시울 적시며 답답해 합니다. 제대로 보답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하나의 길은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건강히 젊은 시절 가슴에 품은 조국과 민중을 향한 뜻을 잘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어르신, 부모님, 각 단체 분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되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시 지켜보는 연대의 눈을 무언의 회초리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한 길을 걸어가겠습  
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우며 남은 살아갈 날을 채워가겠습니다.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